

결혼상담을 위한 복음주의 신학적 기초

이 은 규 교수
(D.R.E., 안양대학교)

국문초록

이 글은 “한 개인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것을 알고 그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독교적 결혼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 결혼에 합당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어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결혼과 결혼생활 이라는 가장 평범한 생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한 글이다.

결혼상담의 영역을 학자들 간에 따라 여러 가지 나누지만, 본 논문은 결혼상담을 결혼 전 상담, 결혼상담, 그리고 가족 상담으로 나눈다. 때문에 이 글은 이러한 상담 영역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결혼의 필요성, 결혼의 목적, 배우자의 자격, 그리고 부부관계’라는 개념을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으로 정의하여 결혼 상담자를 도우려 한 논문이다.

중심단어 : 결혼의 필요성, 결혼의 목적, 배우자 선택, 부부관계, 결혼상담

I. 여는 글

결혼이란 사전적 의미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¹⁾이라고 한다.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 의미, 동기 또는 목적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개인차도 있다. 일반적인 결혼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예를 든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동반자를 얻기 위해, 가족과 자녀를 얻기 위해,

노후대책을 위해, 가문을 계승하기 위해, 성적 만족을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위해, 그리고 사회적 관습을 따라서 등의 목적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분석하여 볼 때, 개인적 동기로는 성적 만족과 심리·정서적 안정의 욕구가 있으며, 사회적 동기로는 종족계승의 기능이 있다. 더욱이 사회적 의미로서 결혼이 종족계승의 기능을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결혼을 통하여 형성한 가족이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되고,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측면을 볼 때, 결혼은 사회집단의 형성과 존속에 있어 본질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는 결혼을 통한 가족이 이와 같은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법으로서 결혼을 사회적으로 공인하고, 가족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행동을 규제하거나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결혼생활을 보장하며,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결혼을 함으로써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기를 기대하지만 결혼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 청년들은 결혼이란 미지의 세계와 달콤한 꿈과 배우자에 대해 자기중심적 많은 기대들을 갖지만, 배우자와 가족을 통하여 자신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을 때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혼 상담을 통하여 결혼 전에 결혼에 관한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부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결혼생활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결혼은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 간의 관계이고, 결혼의 다른 용어인 혼인은 법률적, 사회적, 종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혼인은 전통적으로 한 남자(남편)와 한 여자(아내)의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다.”²⁾는 의미를 신학적으로 조명하여 “결혼의 필요성, 결혼의 목적, 배우자의 자격, 그리고 부부의 관계” 등을 명쾌하게 밝혀서 결혼상담자들이 복음주의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그 기초를 제시할 것이다.

II. 펴는 글

결혼 상담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결혼 전의 상담(premarital counseling), 결혼 상담(marriage counseling), 그리고 가족 상담(family counseling)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³⁾ 이러한 영역에서 복음주의 신학을 기초로서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의 필요성, 결혼의 목적, 배우자의 자격,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복음주의 입장에서 고찰할 것이다.

1. 결혼의 필요성

Isabel V. Sawhill이 “결혼은 좋은 것이다. 결혼한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더 생기면 그 자녀들에게 결혼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⁴⁾고 New York Times에서 말했다. “현재 방법론에 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1960년대 중반에 학계에서 시작된 결혼의 가치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결혼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끄러운 논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결혼이 자녀들, 성인, 그리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믿어왔다. 계속 유지되어온 이 상식은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 그리고 결혼을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동들은 더 나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리고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덜하다는 것이다. 이 아동들은 학교학업에 성공적이고 중퇴하는 비율이 낮고 청소년기의 임신율도 적다는 것이다. 또한 약물남용이나 범죄율도 적다.”⁵⁾ 하지만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허무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⁶⁾ 더욱이 필자는 젊은이들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혼의 불필요성까지 외쳐댄다고 생각한다.

1. 현대 사회가 개인화 되어감에 따라 독신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 이혼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시각의 변화이다.
3. 결혼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결혼비용의 부담감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어주고 있다.
4.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은 남성의 내조와 육아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5.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결혼 연령기를 지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특히 이혼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결혼의 불필요성을 가져온다면 이러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를 교정해야 한다.

2005년도 통계청 통계를 보면, 결혼한 부부는 약 31만 6천 4백 명이고 이혼한 부부는 약 12만 8천 5백 명이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약 41%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이러한 계산이 결혼의 불필요성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큰 오류다.

필자는 아래의 “통계청의 설명과 통계자료”⁷⁾를 통해 잘못된 시각을 교정할 것이다.

-이혼율의 이해

이혼율은 특정기간 중에 이혼의 발생건수를 같은 기간 중 이혼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여기서 분모는 사람마다 노출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인구 개념인 연앙(7월1일 현재)인구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인구통계에서는 이혼에 관한 가장 기본적 지표로 1년간에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눈 조이혼율을 많이 사용한다.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 해당연도에 발생한 총 이혼건수 / 해당연도의 연앙인구 × 1,000

또한 조이혼율은 이혼의 위험(risk of divorce)에 노출된 연령층의 인구 규

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혼인율의 변동에는 이혼 성향의 변화는 물론 인구구조의 변화도 반영되어 있다.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혼인력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text{조혼인율(\%)} = \text{해당연도에 발생한 총 혼인건수} \div \text{해당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년도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혼인건수(천건)	399.3	398.5	334.0	304.9	310.0	316.4	332.8
-조혼인율(천명당)	9.3	8.7	8.7	6.3	6.4	6.5	6.8
이혼건수(천건)	45.7	68.3	120.0	167.1	139.4	128.5	125.0
-조이혼율(천명당)	1.1	1.5	2.5	3.5	2.9	2.6	2.6

이상과 같은 통계청의 설명과 통계자료는 2006년도 우리나라 이혼율이 125,000(이혼건수) ÷ 332,000(혼인건수) = 0.37651인 약 38%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조이혼율 2.6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의 통계청 수치도 만약 결혼율이 감소하고, 이혼율은 유지되거나 증가하게 된다면, 이혼하는 사람비율은 더욱 커지게 되는 오류를 범할 것이다. 다른 예로, 법원행정처는 현재 살아있는 전체 혼인건수(2,815만 건)를 이혼건수(262만 건)에 대비해 이혼율을 9.3%라고 보도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이혼건수를 지금까지의 누적이혼을 더하여 현재의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 역시 이혼율이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200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 60.6%, 미혼 30.1%, 사별 7.4%, 그리고 이혼이 1.9%로 전체인구 중 이

혼한 사람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과장된 수치를 가지고 가치 있고 필요한 결혼을 불필요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을 아래와 같이 경고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리스와 로마가 붕괴된 원인 중의 하나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분열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려 깊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회가 이대로 도덕적인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 때처럼 지금의 문명과 문화가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몇몇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현대사회에 대한 그들의 엄세적인 관점을 이제는 가족생활을 등한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옮겨서 그들을 향하여 소리 높여 경고하고 있다. 그밖에도 어떤 학자들은 여성들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긍지를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제도가 지속되어야 하고,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결합이 우선해야 함을 강조했다.”⁸⁾

결혼과 가족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과 신성함에 대하여 그것들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불확실한 제도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재 확신하면서 살아야 한다. “결혼은 사멸해가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변화해가고 있는 제도이다. 오늘날, 예전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한번쯤은 결혼한다.”⁹⁾고 언급한 Jean Stapleton and Richard Bright의 *Equal Marriage*를 인용해서, Howard Clinebell은 현대인들이 동등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여러 번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제도로서만의 결혼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의 제도가 신성한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혼례는 성례도 아니요,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¹⁰⁾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예배지침 제31조 1은 제시하고 있다. 결혼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탄생된 신적인 제도이고 가장 높은 가능성 있는 인간의 행복을 산출하기 위해 설계되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개발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결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연하고

싶은 말은, “결혼하는 것이나, 결혼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것, 그 어느 쪽이든 그 자체가 미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사업에 힘을 이바지하는 결심에 기초를 둔 결혼만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2. 결혼의 목적

결혼이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는 영적인 언약(Spiritual Covenant)이며,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하는 사회적인 계약(Social Covenant)이며,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위임(Personal Commitment)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도 소중한 결혼을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는 가정의 사랑과 훈계 안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라면 당연히 경건한 자녀를 생산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만 한다. 두 번째로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동반자적인 관계를 허락하기 위함이었다. 결혼은 한마디로 동반자 관계의 언약(The Covenant of Companionship)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결혼의 본질이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목적은 서로가 열심히 자신을 주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랑은 성적 연합 혹은 ‘한 몸’을 이루는 데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곧 헌신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¹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결혼의 목적을 보면,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¹²⁾ 합법적인 자녀를 통한 인류와 거룩한 자손을¹³⁾ 통한 교회의 증가를 위헤스 그리고 음행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¹⁴⁾.”라고 아주 명쾌하게 기록했다.¹⁵⁾

마태복음 19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 남녀

상호간에 상대편이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예수님은 성별의 차이가 남녀를 보완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대로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에 근간이 된다. 둘째 일부일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결혼이 한 제도로써 신성함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결혼제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우고, 음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넷째 결혼은 배우자 중 어느 한 쪽 사람이 죽을 경우에만 종결되는 것이다.”¹⁶⁾ 이 교훈에서도 위에서도 같은 목적들을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세 가지의 표현된 목적을 보면, 첫째로 보충적인 결혼관계에 있는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춘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할지라도 남성 홀로 또는 여성 홀로 그 형상을 적절히 드러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인간성은 양성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창 1:28). 더구나 그들은 한 몸이 되라고 창조되었다(창 2:24).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 상징되었다. 화음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선율이 음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룩한 조화 속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는 어느 누구 하나 독자적으로 보다는 하나님의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좀 더 완벽하게 반영한다. 둘째로 남편-아내의 관계성은 특별한 자질인 하나님 닮음을 증가시키도록 계획되었다. 확실히 하나님의 형상은 죄에 의하여 완전히 망가졌다. 에덴 이 편에서 부모는 그들의 자손이 가장 충분하게 그들의 창조주를 반사하고 적들을 쳐부수는 것을 돕도록 의로움으로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스라엘은 따라서 쉘마(Shema)로 알려져 온 것으로 의로움을 영속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신 6:4-9).¹⁷⁾

부모를 위한 이 쉘마는 5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¹⁸⁾

1. 경건함을 영속시키라는 민족 전체에 대한 모든 부모에 대한 요구가 있다(합축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은 부모가 될 것이다).
2. 이스라엘 종교의 토대는 주를 위한 강렬한 사랑이다. 히브리어 *ahab*(애착, 사랑, 애호)가 일반적인 용어인 반면 그 후에 수정된 것은 그 사랑의 질을 최대한의 강도에 가지 올라가게 한다.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힘 모든

것이 주께로 관여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3.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런 사랑과 더불어 시작한 다음에는 그의 율법이 “너희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때 그 율법은 단순히 외적인 종교적 계율이나 심지어는 중요한 도덕적인 규칙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계율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실체적인 수단이다. 그는 매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의 의도는 우리 삶을 조직하는 중추가 된다.

4.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매우 포괄적이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그 사랑의 질을 나타낸다면 자녀에게 생명을 준 자로서의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 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자에게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갖은 수단을 다 쓸 것이다. 우리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고귀한 율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는 “감화를 주는” 것이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5. 이러한 가르침의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과 어울려져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 교육방법은 좀 더 원인적이며, 임시적이고 심지어는 우발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과과정이 최고선이라면 교육방법은 강렬하고 지속적이며, 상세하며, 광범위하고 삶의 모든 구석과 틈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뒤따르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Shema를 엄청나게 모순되게 적용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삿 2:10-12).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나? 명백한 대답 하나는 그 부모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의 명령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증가시키도록 위임받고 모범이 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세 번째 목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을 경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아담과 이브는 다른 피조물들과 채소, 땅, 그리고 물의 자연적 자원들에 대한 권위 있는 판단을 부여받았다. 시편기자 다윗은 창세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고대의 대리자임을 울려 퍼지게 한다(시 8:4-6).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자녀들을 이끌어 주는 그 권위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에서부터 사회에까지 확대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고 자녀들도 동일한 것을 하라고 가르침으로써 각 가정, 씨족, 부족은 역동적인 사회적 영적 질서를 유지했다. 인간적 영적으로 좋은 관계는 질병과 전염병, 흉작의 조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일시적이고 영적인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함은 말할 나위도 없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것이다(신7:12-16).¹⁹⁾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필자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를 영접한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졌다.”²⁰⁾는 것과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창조는 피조물 중의 핵심이며, 나머지 피조물들은 그들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 놓였다. 이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숭고한 목적은 그가 범죄 했을 때 더럽혀지고 말았다. 하지만, “결혼의 또 다른 목적인 피조물들의 보호와 보살핌은 지금도 남아있다.”²¹⁾는 결혼의 목적으로 집약하고 싶다.

3. 배우자의 자격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고 결혼의 목적을 깨닫고 나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성경이 제시하여 주는 일련의 결혼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표현하는 배우자의 선택기준이 신자들의 배우자의 선택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먼저 배우자를 선택해놓고 이러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강요나 억지가 되어 당연히 결혼생활의 갈등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결혼의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Otto A. Piper는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²²⁾

1. 평생의 지속—결혼을 통한 성적 결합은 두 사람의 생활에 끼치는 독특

- 하고도 파괴할 수 없는 효과 때문에 평생을 지속하게 된다.
2. 친교의 생활—결혼은 가정과 함께 공존한다. 부부의 완전한 결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부부 자신들의 공동생활인 가정이다.
 3. 상호관계성—육체의 결합은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관련되어 기독교 신앙 안에 서 이해된다(출21:10, 고전7:4-5, 살전4:4, 고전7:39).
 4. 자녀를 가지고 싶은 욕망—자녀는 부모에게 약속된 축복이란 사실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결혼으로 간주된다. 자녀수의 문제는 부모에게 위탁된 책임성과 자유성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5. 일부일처주의—결혼은 평생 일부일처주의에서만 충분한 의미를 달성한다. 창2:23-24과 십계명의 제 7계명과 예수님의 교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적 뜻이 일부일처의 결혼관계를 분명히 한다(마 5:27-28, 19:6-9, 막10:8-9). 특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상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상에 비친 사상에서 일부일처의 우월한 존엄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6. 근친결혼의 금지—일정한 촌수와, 혈족, 친족의 결혼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의 기준들을 이해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골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이러한 이해로 만족할만한 사람이 골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기독교인의 최소한의 결혼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위와 같은 이해가진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²³⁾, 오직 주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다.²⁴⁾ 그러므로 참된 개혁과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무신앙자, 로마가톨릭 신자, 기타 우상숭배자와 결혼할 수 없다. 또한 경건한 자는 생활이 현저히 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을 이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자와 결혼하여 짝할 수 없다.^{25) 26)}”고 말하며 신자는 배우자로 신자만을 선택하고 골라야 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성경도 그리스도인이 신자와만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후6:14).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분명한 제한을 주고 있다(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신용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넓은 범위를 주고 있다(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할 수 없고 우리의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⁷⁾는 해석과 설명을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신자를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전제 아래서도, 일반적인 배우자의 선택기준인 개인이 성장해온 가정배경, 용모 및 건강, 인생관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태도에 대한 공통의 관심, 안정감과 책임감 있고 성실한 행동의 기준, 경제력, 연령, 사회적 지위, 학력 등을 신자의 배우자 선택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들로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배우자 서로가 상대방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중요한 인물이며 또한 구속받은 개인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²⁸⁾는 기본적인 전제를 일반적 선택기준이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부연하면, 일반적 기준이 너무 좋아서 배우자로 선택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가족에서의 배우자가 선택과정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결정해야하는가 라는 선택기준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수직적 가족구조와 가부장제도에 따라 부부관계가 부자관계에 종속되어있으며, 부부관계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가족구조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은 개인의 의사와 감정보다는 가문의 계급적 지위를 중요시하는 인위적인 중매 결혼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가계계승, 시부모 봉양, 가족의 화목과 발전 등의 결혼목적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 선택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결정하기도하였다. 전통적인 우리사회 같이 구약성경을 보면, “결혼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성사되기도 했으나 총각의 관심과 처녀의 동의를 고려하는 관습이 있었다.”²⁹⁾

그러나 민주적 교육과 개인 중심적 사고, 개인의 행복과 안정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을 존중하면서 부모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충적인 방

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은 부모들이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고 승낙할 것인지를 잘 안다. 따라서 부모의 배우자 선택기준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여 부모의 승낙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부모의 반대가 심하거나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였을 때,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족체계 안에서의 지원체계의 도움과 지원을 받기는 매우 힘들다.

때문에 경건한 결혼생활을 시작하려는 크리스천들은 아래에 질문들인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요구사항들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한다.³⁰⁾ 이것이 크리스천을 위한 배우자 자격과 결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크리스천인가?(고후6:14)

-두 사람 모두는 성경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두 사람은 성경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가?(고전13장) -성경적인 사랑을 언급한 것은 다윗왕의 아들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여”,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동침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삼하13:1).

-두 사람의 부모들 모두는 결혼을 승낙했는가?(출20:12)

“결혼이 결코 성숙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 이미 성숙된 사람을 위한 기회라면”³¹⁾, 성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과 상담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숙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사람이다.

-주체성이 뚜렷한 사람

-자율적인 사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줄 줄 아는 사람

-가족 부양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결점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

-사회기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신앙)으로 회개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한,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성화는 부패성에 의하여 전진하기도 하고 침체하기도 하고 퇴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삶의 여정으로 나타나 있다. 죄와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영의 힘으로 공급으로 궁극적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도록 역사하신다.”³²⁾는 것을 알고 우리의 영적 성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모든 것을 섭리론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성을 이미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신자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자격은 필수적으로 ‘신자’ 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어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크리스천 남녀가 이러한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하여 결혼 생활을 파괴하여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여전히 결혼한 상태이며 또한 그 과정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들의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한 성경적인 근거로서 고린도후서 14:6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더 더욱 신자는 그의 배우자를 그리스도를 믿는 위치로까지 인도할 수 있는 증거의 생활을 해야만 한다.³³⁾

4. 부부관계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결혼의 목적을 알고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결국은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다.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가 맺어지면 공동의 생활과 함께 가족생활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복잡해진다. 이런 정식으로 부부관계가 무엇일까? 성경은 정식으로의 부부관계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아담과 그 아내가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창2:24-25).”라는 짧은 두 구절로 함축한다. 필자는 이 구절들로부터 “독립의 원리, 연합의 원리, 하나 됨의 원리, 그리고 친밀성의 원리”³⁴⁾라고 한 성경적 결혼의 네 가지 원리를 “부부관계”의 성경적 네 가지 원리라고 제안하고 싶다. 결혼이 ‘정식으로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면, 결혼이라는 추상적 단어보다는 ‘부부관계’라는 구체성을 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결혼할 때 이 원리가 적용도 돼야 하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는 법적으로, 속성으로 그리고 관계유형으로 설명되고 있다. 먼저 법적으로, 성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부부관계가 형성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 명시한 법적 보호와 의무 그리고 제한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을 법적으로 통제한다. 우리나라의 민법에는 혼인의 조건으로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만 20세 미만)가 결혼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근친혼은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결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혼인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³⁵⁾ 이와 같은 법은 결혼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가족과 친척 및 친지들의 인정은 물론, 사회적 승인과 함께 법적 승인을 받아야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결혼의 실질적 효력이 생긴다. 즉 혼인신고를 함으로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다. 결혼식을 하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혼인신고를 하였으면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는다.

위에서 보았듯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부가 되면 비로써 부부관계가 형성된다. 부부는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되며, 상대방의 가족과의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남편은

아내의 부모와, 아내는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사이에 인척으로서 친족이 된다. 그리고 계모와 전처의 출생자녀 사이에는 계모자 관계, 적모와 혼인외의 출생자 사이에는 적모서자관계가 생긴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부는 결혼 이후에도 본래의 성을 그대로 가진다. 그리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이다.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민법은 부정한 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 840조 1항),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정조의무를 져야 한다. 그리고 재산에 관하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 830조 2항), 부부의 공동생활비의 부담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 833조).

다음으로 부부관계의 속성을 보면, 전통적 부부관계와 현대의 부부관계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부부관계는 평등한 인격존중의 관계보다는 권위주의적 구조로서 주종관계이며 상하관계가 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대사회에서 그 특성이 약화는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의 중심은 부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관계(아버지와 장남의 관계)에 있으므로 부부관계는 친자관계에 비하면 이차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평등과 우애의 관계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수직적 관계로 유지되었다.

이런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부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부인은 남편의 통제에 복종하는 것이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가치와 이념이었다. 예를 들면, 부인은 남편을 따르고 공경하며, 남편보다는 시부모에게 예속되어 시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여도 시부모가 좋아하지 않으면 부인과 헤어져야 했고, 애정이 없어도 시부모를 잘 섬기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가족이 부부중심이 아니라 친자중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결혼은 가문의 계승과 집안의 화목에 일차적인 목적

을 두지 않고 부부 사이에 애정적 유대관계에 기반을 두며, 가족 전체보다는 부부중심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현대 부부생활은 핵가족 내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므로써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며 부부관계도 애정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부부 상호간에 기대, 가치관, 결혼의 동기, 가족 의식,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불만과 좌절감으로 가족관계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더 커졌다. 남자들은 자신들에 편리한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중재자가 없다는 것도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이 약화된 것도 큰 문제이다.

결혼에 의한 이러한 부부관계는 지속되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것이다. 결혼생활을 연구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안정된 결혼생활은 행복하고 성공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행복과 성공에 대한 비결, 또는 그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결혼생활의 현실은 행-불행 또는 성공-실패라는 직선적 척도 위에서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질의 관계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³⁶⁾고 한다. 때문에 정상적이며 안정된 결혼생활의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행해지기 시작됐고, 부부관계를 관계유형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나왔다. J. Cuber와 P. Harroff는 미국사회에서 직업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중상층의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관계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결혼관계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³⁷⁾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관계는 고독의 두려움이 서로에게 크게 작용하면서 결혼생활이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에 의해서 부부생활이 함께 유지될지도 모른다.

-활력을 잃은 부부관계는 자주 자녀들에 의해서 결혼생활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부부는 비록 명백하게 많은 갈등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결혼생활의 아름다움은 없는 상태이다.

-상호수동적인 부부관계는 서로의 흥미를 나누는 ‘즐거운 결혼’처럼 보이기 는 하지만 부부 서로 간에 친밀함이 많이 없는 상태이다.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흥미의 대부분은 결혼생활 바깥에서 찾으려 한다.

-활력적인 부부관계는 부부 간에 적어도 한 가지 주요한 영역에서 공통적인 흥미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가지 주요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완전한 부부관계는 부부 간의 흥미, 활동, 목표 등의 대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관계이다.

부부의 관계를 성경적 전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특성으로, 그리고 관계유형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설명들을 보면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평등한 관계를 갖도록 하고 있고 속성으로도 부부관계는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관계유형으로 보아도 부부관계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부부관계는 부부 간의 흥미, 활동, 목표 등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부부관계였다.

기독교적 부부관계는 배우자의 음행과 죽음을 빼놓고는 파괴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부부관계가 깨지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³⁸⁾

-이혼사유별 이혼-

*분석

이혼한 나이는 2006년에 남자 42.6세, 여자 39.3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 4.0세, 여자 4.5세가 높아졌다. 이혼율은 2006년 기준으로 남자는 35-44세, 여자는 30-39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2006년 이혼부부의 동거기간별 구성비를 보면 5년 미만은 26.5%, 10-14년은 18.0%, 20년 이상은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결혼 후 7년이 지나면 이혼을 하고 싶어 몸이 근질(The Seven Year Itch) 거리기 때문에 이혼이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초혼의 절반이 이혼으로 끝난다는 미국에서조차 결혼 7년이 지나면 이혼이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이는

결혼 기간이 길수록 결혼의 이익과 이혼의 불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Goldsten, 2003).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 미만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줄고 있는 반면, 20년 이상 장기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여성의 지위가 교육수준의 향상,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동안의 이혼 욕구가 자식이 성인이 된 후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이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혼사유별 이혼 단위(천 건, %)

년도	2000		2002		2004		2006	
	천건	구성비	천건	구성비	천건	구성비	천건	구성비
배우자 부정	9.7	8.1	12.6	8.6	9.7	7.0	9.9	7.6
정신,육체적 학대	5.2	4.3	6.9	4.8	5.9	4.2	5.6	4.5
가족간 불화	26.3	21.9	20.9	14.4	14.0	10.0	11.1	8.9
경제 문제	12.8	10.7	19.7	13.6	20.5	14.7	18.3	14.6
성격차이	48.2	40.1	65.0	44.7	68.8	49.4	62.2	49.7
건강상	1.1	0.9	0.9	0.6	0.9	0.6	1.0	0.8
기타	15.6	13.0	17.9	12.3	16.9	12.1	15.0	12.0
미상	1.2	1.0	1.4	1.0	2.7	2.0	2.4	1.9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은 어떤 경우도 이혼할 수 없다는 것만 강조한다고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을 통하여 크리스천은 부부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안내받고 실제적으로 삶에 그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결혼은 단지 인간의 약속 이상이다. 크리스천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 법률적 계약 이상인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탄생된 신적인 제도이고 가장 높은 가능성 있는 인간의 행복을 산출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은 신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 있는 성공을 이루려면 아내와 도움을 위해 성경으로 가야 한다. 특별히, 남편과 부인의 공동적 책임들을 다루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절들의 하나는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된다. 때문에 부부관계의 기초를 위해 적어도 상담자는 다음과 같이 에베소서 5장 21절-33절을 가르쳐야 하고 강조해야 한다.

상담자는 남편과 부인 모두는 결혼관계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도록 격려된다는 사실인 엡5:21을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 상담자는 '결혼은 가볍게 또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결합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또 상담자는 '엡5:21은 하나님이 결혼에서 첫 번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우리는 결혼에서 동반자에 대해 우리 자신들을 관련짓는 방법을 위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도 알게 해야 한다.

엡5:21-33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관계로서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비교한다. 이 구절은 관계의 권리와 특권 보다는 오히려 결혼관계에서 공동적 책임을 강조한다. 때문에 상담자는 부부관계에서 공동적 책임을 남편과 부인에게 가르쳐야 한다.

상담자는 남편이 두 가지 방법으로 그의 부인을 사랑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첫째, 남편은 그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엡5:25) 사랑하도록 성경이 명령한다. 이것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보다 부인의 행복을 앞세우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둘째, 남편은 그의 부인을 그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엡5:28). 남편은 희생적 사랑과 자기 사랑의 결합에 의하여 그의 부인의 가장 좋은 관심들과 행복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

엡5:21-33은 또한 부인에 대한 두 가지 명령을 담고 있다. 22절은 부인이 가장으로서 남편을 인정하도록 격려하고 33절은 부인이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강조한다. 부인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없지만, 그것은 암시되고 있다. 순결하고 지속되는 사랑은 존경을 기초로 한다. 상담

자는 이것들을 부인에게 가르쳐야 한다.

상담자는 남편이 부인의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자신으로 처신하는 것이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상담자는 남편의 자기-희생적 그리고 자기-사랑적 사랑과 부인의 남편의 인정과 존경이 부부관계의 지속력의 원동력임을 깨달으면서 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III. 닫는 글

이 글은 “한 개인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것을 알고 그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독교적 결혼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 결혼에 합당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어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결혼과 결혼생활 이라는 가장 평범한 제시를 했다.

결혼상담의 영역을 학자들 간에 따라 여러 가지 나누지만, 본 논문은 결혼 상담을 결혼 전 상담, 결혼상담, 그리고 가족 상담으로 나눈다. 때문에 이 글은 이러한 상담 영역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결혼의 필요성, 결혼의 목적, 배우자의 자격, 그리고 부부관계’라는 개념을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결혼의 필요성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필요성을 왜곡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이혼율의 영향을 고찰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은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를 영접한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졌다.”는 것과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창조는 피조물 중의 핵심이며, 나머지 피조물들은 그들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 놓으

했다. 이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숭고한 목적은 그가 범죄 했을 때 더럽혀지고 말았다. 하지만, “결혼의 또 다른 목적인 피조물들의 보호와 보살핌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결혼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또한 배우자의 자격은 신자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관계는 창세기 2:24-25을 성경적 관점으로 전제하고 법적으로, 속성적으로, 그리고 관계 유형적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이러한 관계를 파괴하는 요인을 찾아보고 부부관계의 강화로 에베소서 5:21-33부터 사랑과 존경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의 정의는 복음주의 결혼상담의 기초적인 방향을 세워줄 것이고 복음주의 결혼상담자를 도울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경원(ed.).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안양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출판국, 2003.
- 박상경. 「개혁신앙의 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서울 : 예루살렘, 2004.
- 십수명 외 11명.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 서울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 설은주. 「가정사역론」.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이은규. 「교육목회의 New 파트너」. 서울 : 크리스천리더, 2002.
- 추부길. *Family Ministry*. 서울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0.
- Clinebell, Howard.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박근원 역. 「목회상담신문」.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Graendorf, C. Werner(ed.).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김국환 역. 「복음주의기독교교육론」.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Horn, F. Wade. “건강한 결혼이 가정을 굳게 한다: *Encouraging healthy marriage strengthening the American Family*”. 이희철 역. 한국가정상담연구소, 「가정과 상담」 통권 88호(2005) : 24.
- McDowell, Josh and Bob Hostetler. *Josh McDowell's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오성춘 역. 「청소년상담핸드북(상)」.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Meier, D. Paul,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rn, & Donald E. Ratcliff,

-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전요섭 외 5인 공역, 「기독교상담심리학 개론」.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Piper, A. Otto. *The Biblical View of Sex and Marriage*. 강한표, 전경연 역, 「성과 결혼」.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6.
- Gilbert A. Peterson, A. Gilbert. *The Christian Education of Adults*. 이정호 역, 「성인 기독교교육」. 서울 : 도서출판 마라나다, 1988.
- Stewart, C. William. *The Minister as Marriage Counselor*.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 Zuck, B. Roy and Gene A. Getz(ed.). *Adult Education In The Church*. 신창기 역. 「교회와 장년교육」.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http://alldic.daum.net/dic/search_result_total.do?w=dic&9=%b0%E1%c8%A5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43146>
- <http://www.kosis.kr>

[후주]

- 1) http://alldic.daum.net/dic/search_result_total.do?w=dic&9=%b0%E1%c8%A5
- 2)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43146>
- 3) Charles William Stewart, *The Minister as Marriage Counselor*, (Nashville: abingdon Press,1983), 21.
- 4) Wade F. Horn, "건강한 결혼이 가정을 굳게 한다: *Encouraging healthy marriage strengthening the American Family*" 이희철 역, 한국가정상담연구소, 「가정과 상담」 통권 88호(2005) : 24.
- 5) Wade F. Horn, 24.
- 6) Werner C. Graendorf(ed.),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김국환 역, 「복음주의기독교교육론」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271.
- 7) <http://www.kosis.kr>
- 8) Werner C. Graendorf(ed.), 272.
- 9) Howard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박근원 역, 「목회상담신론」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368-369.
- 10) 강경원(ed.),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안양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출판국, 2003), 242.
- 11) 추부길, *Family Ministry* (서울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0), 79-81.
- 12) 창 2:18
- 13) 말 2:15
- 14) 교전 7:2, 9

- 15) 박상경, 「개혁신앙의 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서울 : 예루살렘, 2004), 214.
- 16) 박상경, 214.
- 17) Gilbert A. Peterson, *The Christian Education of Adults* 이정호 역, 「성인 기독교교육」(서울 : 도서출판 마라나다, 1988), 267-269.
- 18) Gilbert A. Peterson, 269-270.
- 19) Gilbert A. Peterson, 271-272.
- 20) Werner C. Gadendorf(ed.), 279.
- 21) 이은규, 「교육목회의 New 파트너」(서울 : 크리스천리더, 2002), 68.
- 22) Otto A. Piper, *The Biblical View of Sex and Marriage*, 강한표, 전경연 역, 「성과 결혼」(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6), 190-203.
- 23) 히 13:4, 딤후전 4:3, 고전 7:36-38.
- 24) 고전 7:39.
- 25) 출 34:16, 신 7:3,4, 왕상 11:4, 느 13:25-27, 말 2:11-12, 고후 6:14.
- 26) 박상경, 215.
- 27) Josh McDowell and Bob Hostetler, *Josh McDowell's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오성춘 역, 「청소년상담핸드북(상)」(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235.
- 28) Roy B. Zuck and Gene A. Getz(ed.), *Adult Education In The Church* 신청기역, 「교회와 장년교육」(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32.
- 29) 창 24:57-58
- 30) Josh McDowell and Bob Hostetler, 238.
- 31) Roy B. Zuck and Gene A. Getz(ed.), 324.
- 32) 박상경, 156.
- 33) Werner C. Gadendorf(ed.), 278. 박상경, 217.
- 34) 심수명 외 11명,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서울: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238-249.
- 35) <http://www.klaw.go.kr/>
- 36) 설은주, 「가정사역론」(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244.
- 37) Paul D. Meier,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rn, &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전요섭 외 5인 공역, 「기독교상담심리학 개론」(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431. 설은주, 244.
- 38) <http://www.kosis.kr>

【 Abstract 】

Theological Foundation Of Evangelicalism For Marriage Counseling

Eun-Kyoo Lee
(Anyang University)

This paper adopts a simple yet comprehensive approach to marriage and married life as “one individual realizing marriage as an institution established by God, recognizing the true purpose of marriage, choosing a suitable spouse upon fully understanding the nature of Christian marriage, officially establishing a marital relationship and maintaining that relationship.”

While the areas of marriage counseling are categoriz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scholar, this paper divides it into pre-marital counseling, marriage counseling and family counseling. Accordingly, this paper defines four fundamental concepts in this field of counseling - the necessity of marriage, the objective of marriage, qualifications of the spouse and marital relations - from the perspective of evangelical theology to assist counselors.

Key words: necessity of marriage, purpose of marriage, choosing a spouse, marital relations, marriage counseling